2023년 11월 19일(가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33 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온라인(Zoom)
(문의 : 김우경 가브리엘라)

퀸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11 월]

복음화 지향 : 교황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교황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시면서 맡겨진 양 떼와 동행해 나가시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며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창조와 은총의 모든 복을 사람의 손에 맡기시어, 우리가 좋은 뜻을 세워 아버지의 섭리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돌아오실 아버지를 깨어 기다리는 충실한 종으로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합시다.

제1독서 잠언의 말씀입니다. 31,10-13.19-20.30-31
<훌륭한 아내는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한다.>

화답송 시편 128(127),1-2.3.4-5 (◎ 1ㄱ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5,1-6
<주님의 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5,4.5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14-30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영성체송 시편 73(72),28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영성체 후 묵상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라는 잠언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받은 탈렌트를 활용하여 가난한 이에게 손을 내밀고 불쌍한 이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2023 년 11 월 19 일(가해)

연중 제 33 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 오늘의 복음 묵상 – 김상우 바오로 신부 ♣

주님의 다시 오심과 준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며 어떤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여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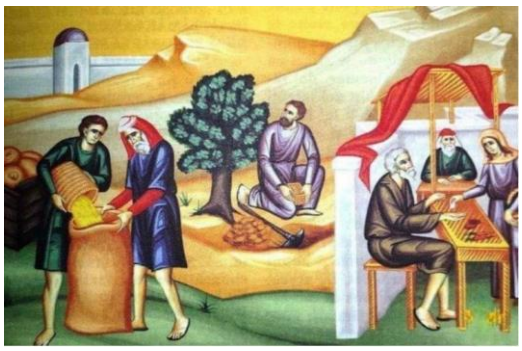
제 1 독서는 하느님과 그분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라는 구절에서 잠언 전체의 주제, 곧 '지혜의 근원은 주님을 경외함'이 드러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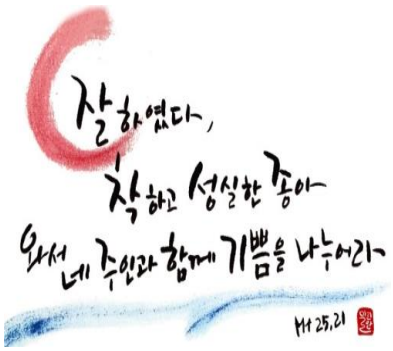
제 2 독서에서 바오로는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과(이사 2,11; 예레 30,5-7; 요엘 1,15; 스바 1,14.15; 아모 5,18 참조)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의 대립 명제를 사용하며, '깨어 있으라'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잠들어 있음'과 대조되는 '깨어 있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마태 25 장; 루카 12,35-4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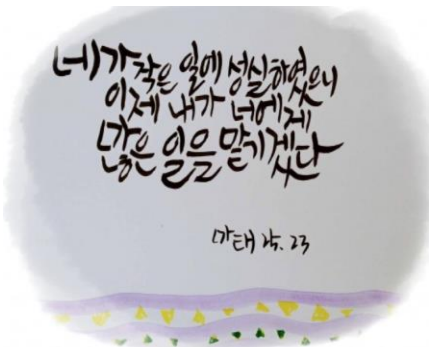
한편 복음에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며 종들에게 재산을 맡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종들의 사명은 각자에게 맡겨진 탈렌트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탈렌트'는 당시 일꾼이 6,000 일, 약 16 년 반 동안 일하여야 벌 수 있는 액수며, '두 탈렌트'는 약 33 년, '다섯 탈렌트'는 약 82 년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의 총합입니다.

이 비유는 각자에게 다르게 맡겨진 조건과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라는 초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빈부, 교육, 주거, 심지어 꿈의 격차까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탈렌트를 맡기셨습니다. 이 같은 차이에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공동의 지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 연중 제 33 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 구절

'게으른 종', 니콜라스 마스 作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마태 25,30).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2023 년 11 월 19 일(가해)

연중 제 33 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2023 년 제 7 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프란치스코 교황 담화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토빗 4,7)

담화문을 통해 교황님께서는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표징이며 우리 공동체 삶의 버팀목임을 상기하시면서 이 거행이 교회의 사목 안에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날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교황님은 가난한 이들을 환대하고자 일상에서 기울이는 노력으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으시다면서 구약성경의 토빗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기를 권하셨습니다.

토빗기는, 우리가 가난한 이들과 함께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현실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이는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하신 교황님은 공동체가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느끼는 데 요구되는 화합을 촉진하려면 우리가 서로를 찾아내고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며 가난한 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가난이 훼손한 올바른 상호 인격적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황님은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의 자서전『한 영혼의 이야기』(L'Histoire d'une âme)에서 "*예수님께서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비추고 즐겁게 하여야 하는 애덕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를 인용하시면서, 데레사 성녀의 굳건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고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인간적이며 신적인 면모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기를 간구하셨습니다.

<담화문 전문>

https://cbck.or.kr/Notice/20230526?gb=K1200

[영상 시청 -이미지 클릭]

가자 위기 구호성금 (Gaza Crisis Appeal) – Caritas Australia

지난 10 월 7 일 이스라엘-하마스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140 만 이상의 피난민과 수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자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모금을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성 요한 23 세 교황님께서 1963 년 4 월 11 일 반포하신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회칙이 60 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회칙은 인간의 존경성으로 선언하는데 기초을 두고 있고, 인간집단의 공동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규준을 진리와 정의와 자유와 사랑안에서 인류궁극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금운동에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탈렌트를 통해 얻은 것을 그리스도인의 애덕으로 위기에 빠진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모금액은 카리타스(Caritas) 호주지부에 기부됩니다.

[모금기간] 2023 년 11 월 19 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 12 월 17 일 (자선 주일)

[참여방법] 성전 입구에 비치된 성금봉투를 사용해 주시고 교무금함에 넣어주세요.

캔버라 한인성당 카카오톡 채널 개설

주보 및 기타 사항들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한인성당 이메일, 전화 뿐 아니라, 채널 내 1:1 채팅방을 통해서도 문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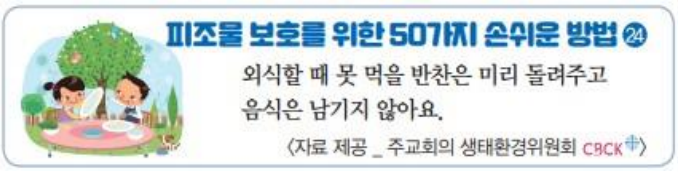
[채널 등록 방법]

1. 카카오톡에서 '캔버라 한인성당'으로 검색하여 친구추가
2. 아래의 QR 코드를 핸드폰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친구 추가

2023 년 11 월 19 일(가해)

연중 제 33 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 연중 제 33 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주간실천 |



우리 공동체에서는 공동의 집인 지구와 환경생태 보호를 위해 일회용 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음식나눔, 다과 등의 행사시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의 구약 종주

27 강 요나서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이 시대의 주요한 관심사는
정체성 확립과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었습니다 .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60 강]
성군 히즈키야와 이사야 예언자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열왕기 11 부 | 2 열왕 18-20
이사 18-39

떼제(taize) 기도

5 분만 시간을 내어 함께 기도해요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5 분 기도 -7-] 시련을 당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야고보 1,2-8)

□ 미사 참례자수

11 월 5 일(로컬다문화미사)	성인 37 아이 11	11 월 12 일	성인 38 아이 11

□ 우리들의 정성 (11 월 11 일(토)~17 일(금))

권묘순	김요한	김천주	남궁영근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재희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주정자		
교무금 $620 (14 가정) / 봉헌금 $190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우경 가브리엘라 – 전례분과)

	11 월 19 일 연중 제 33 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11 월 26 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성서 주간)
독서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주정자 루치아, 이명진 이사악
예물봉헌	루카반	마르코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19 일) 루카반 → (26)일 마르코반 → (12 월 3 일) 마태오반

○ **미사 후 친교 (매월 첫째주 식사, 셋째주 간식)**: (19 일 - 간식) 마르코반

□ 미사성가 안내 ※ 반주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우경 가브리엘라 – 전례분과)

	입 당	예 물	영 성 체	파 견
11 월 19 일	48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41 형제에게 베푼 것	46 사랑의 송가	227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11 월 26 일	75 주 그리스도 우리 왕	340 봉헌	175 이보다 더 큰 은혜와	73 만민의 왕 그리스도